

국힘 혁신위 '최후통첩' 최고위 상정 불발...지도부 '무반응'

지도부·중진·친윤 출신 불출마·힘치 출마 요구 '희생 혁신안'

"요청 없었다" "사실 아니다"...불발 배경 놓고 진실공방 입씨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에 무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이를 일축한 셈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힘치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는 일찌감치 묵살당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지도부와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 상정 불발 배경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적극적 상정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오신환 혁신위원은 언론을 통해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혁신위는 오는 7일 열릴 최고위에 다시 '희생 혁신안'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회견과 만나 "중진 용퇴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 본연의 역할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3분 만에 요리가 안 나왔다고 실패는 아닌 것"이라면서 "추후 김기현 지도부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룰을 세팅할 때 혁신위의 방향성을 얼마나 존중하는 지를 보면 진정성이 충분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줄다리기 상황이 지도부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동시에 '비대위 폭탄'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참패를 반성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 혁신위의 결론이 '김기현 책임론'이 되는 셈이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가 적지 않은 기류다.

한 선출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희생'이 의결 사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만 내놔도 되는 것"이라며 "정무 감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이라며 김 대표 면전에서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민주당도 혁신위 요구에 건건이 반응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희생 혁신안을 안건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목요일(7일)쯤 비대위 전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인 위원장을 배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주류 희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점에서 지도부 교체 등 구체적인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 전망'에 대해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비대위는) 현재 상황에서 논의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대안 없는 비대위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지도부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구성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野 정쟁용 특검 강행, 대장동·울산선거개입 물타기"

"김여사 특검, 없는 혐의 부풀리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찬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판결문의 혐의에 대해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검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친문(친문재인) 검찰 주도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리

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선 독기 서린 자제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강행해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요구를 유발하는 것도 무한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키고 당리당략만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운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요소수 대란 반복 우려...대책 강구해야"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

국민의힘은 4일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요소수 사태 재발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수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소수는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 제거와 국민들의 경유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만큼 비상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하며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며 "대외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범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며 "이 회복의 온기를 더 뜨겁게 만들고 흐름이 지속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동이 걸린 수출 증가에 가속이 붙도록 뒷받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저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7.6%...3주 만에 상승세 멈춰

리얼미터 조사...0.5%p 내려

4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5%p 내린 37.6%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18세 이상 2507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 상승(34.7%→35.6%→38.1%)세를 보이며 30% 후반대를 회복한 바 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1%p ↓), 부산·울산·경남(3.1%p ↓), 서울(2.8%p ↓), 광주·전라(2.0%p ↓)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3.9%p

↑)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2.9%p ↓), 60대(2.2%p ↓), 70대 이상(1.6%p ↓)에서 내렸고, 20대(4.3%p ↑), 30대(1.1%p ↑)에서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에선 하락했고 보수층(1.2%p ↑)에선 상승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공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린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